

술과 섹스의 속궁합

최 형 기 · 영동세브란스병원 비뇨기과

술이 없다면 그곳에 사람도 없다' 고 말한 한 철학자의 표현은 진리다. 술이 없는 잔칫상이 있을리 만무하고, 기쁘거나 슬플 때 한잔하게 되는 것이 술이다. 사랑할 때도 술은 멋진 파트너가 된다.

하지만 술은 두 개의 얼굴을 지니고 있어 적당하면 약이 되지만, 지나치면 사랑을 방해하는 훼방꾼으로 모습을 바꾼다. 테스토스테론 생산을 저하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알코올 중독 초기 증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성 기능 장애다. 상습과음을 하는 경우 남성 호르몬 분비와 성 신경계통이 손상되며, 또한 알코올이 고환장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뿐 아니라 간 기능을 해침으로써 만성 간염, 간경화증, 간암에 이르게 하는 것이 또한 술의 정체가기도 하다.

과도한 음주는 남성 성기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첫째 음주가 만성 알코올성 간염을 악화시켜 성 기능에 장애를 주거나 발육을 부진하게 하고, 둘째 오랫동안 과음을 할 경우 생식력 저하 및 발기 장애를 일으키고, 셋째 과음이 생식관계 내분비선인 성 호르몬 분비에 장애를 주어 남성 호르몬 분비를 감소시킴으로써 고환을 위축시킨다. 심지어 음경의 왜소화 현상까지 일으키는 수도 있다.

전직 공무원 S씨(55세). 그는 건강이 나쁘는데 다 근래들어 발기마저 잘 안되어 우울증 장애까지 호소한 케이스다.

“술을 많이 하십니까?”

“대개 하루에 소주 한 병은 마십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많이 마셨나요?”

“한 20년 되었지요. 공무원 생활을 하다보니 그만 매일 대접받는게 몸에 배서……. 마실 땐 좋았는데……. 이젠 간이 나빠질대로 나빠져 사직하고 쉬고 싶습니다.”

검사 결과 발기 및 사정 장애와 함께 우울증도 상당히 진전된 상태였고, 간 효소인 SGOT, SGPT 모두 100 이상, 식전 혈당 300mg/dl라는 최악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었다. 한마디로 수술적 치료 외에는 다른 치료 효과를 기대할 상황이 아니었다.

“만성 간염 뿐만 아니라 심한 당뇨 합병증으로 수술이 당장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우선 간염과 당뇨병을 치료하여 어느 정도 건강상태가 좋아진 뒤 수술을 받는게 좋겠습니다.”

이러한 S씨의 경우는 단순히 발기가 잘 안된다, 예전 같지 않게 무력하다는 등등의 증세를 한가롭게 나열하기엔 이미 위험수위를 넘은 중환자인 셈이다. 따라서 마취 및 수술로 인한 제 3의 합병증은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다.

만성 알코올 중독자의 말로. 그 길목에 서서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 공짜 술 좋아하다가 일생을 망치는 어리석음을 언젠가 버려라.

술은 필요할 때 1단계 수준 정도로 즐기면 약이 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면 중추신경계, 내장, 혈액, 근육 등의 모든 대사물질에 영향을 미쳐 심신이 황폐해지며 남성 호르몬 생성이 억제되는 등 부작용이 심하다.

그렇다면 1단계란 어느 정도의 '증세'를 나타낼까. 미국의학협회가 제시한 리포트 '음주의 5단계와 인체변화'에 따르면 술을 마신 후 얼굴이 붉어지고 행복감을 느끼며 식욕도 생기

고 자신감이 솟아나는 정도로, 말하자면 사랑하는 사람이나 상사에게 하기 힘든 말을 용기내어 할 수 있는 상태까지를 뜻한다.

만약 사고에 혼란이 생기고 자기 통

제가 힘들며 무책임한 말을 내뱉을 때 (2단계), 비틀거리며 혀가 꼬부라져 말이 잘 안될 때 (3단계), 서 있기가 힘들 때 (5단계)가 자주 반복되면 인체의 균형이 깨지면서 의사마저도 손을 드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

생명이나, 섹스나? - 약물복용과 성 기능 장애

“혈압이 높으시다고요?”

“약을 먹어서인지 160/100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얇고 계신 병 때문에 계속 드시는 약이 있습니까?”

“강하제를 복용한지 2년쯤 되었을 겁니다. 사실은 혈압보다 더 고민되는게 있어서요. ……약을 먹어서인지 발기가 잘 안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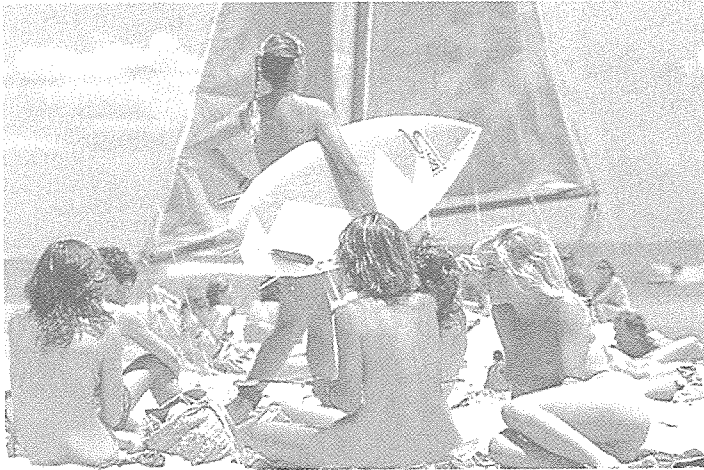
“그렇다면 내과 전문의와 상의해서 혈압약을 줄여보시고, 짜게 드시지 말고, 매일 조금씩 뛰고 운동을 해 보세요.”

한달 후에 환자를 다시 만났다.

“좀 어떠십니까?”

“박사님 권유대로 동네 테니스 코트를 뛰면서 조심스럽게 운동을 시작했지요. 약 안 먹고도 혈압이 조절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지 해 볼겁니다. 무엇보다 성욕이 사라지니 사는 게 허망해서…….”

“운동과 식이요법 만으로도 혈압이 조절되지만, 방심하면 또 나빠질 수 있으니 주기적으



로 혈압을 측정하셔야 합니다.”

L 씨처럼 ‘약 끊기’가 수월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K씨와 같이 장기간 약물 복용으로 스스로 성 기능을 회복하기가 어려운 예도 있다.

“1 ~ 2년 사이에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성욕이 떨어졌어요. 약을 먹으면 하루 종일 나른하고 기운이 떨어져 꼼짝하기가 싫지요.”

혈압약을 끊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발기력도 좋아졌지만, 혈압이 조절되지 않았다.

약을 따르자니 발기장애가 오고, 성 기능을 살리자니 혈압이 오르는데 어느 쪽을 선택하고 어느 쪽을 버려야 할지 참으로 난감한 일이었다.

“선생님, 고민을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약성 고혈압이니 약을 끊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생명이 우선일테니까요. 약을 복용하면서도 원만한 부부생활을 원하신다면 수술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약물의 장기 복용은 성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수년 전 고혈압 치료제인 이노제나 신경안정제, 항우울제 등의 의약품 중 일부가 성 기능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가 해외 의학계에 잇따라 발표돼 관심을 모은 적이 있다.

약을 과다하게 복용하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 가운데 남성은 성욕감퇴 및 발기 장애 등을, 여성은 성욕감퇴는 물론 질 분비액이 현저히 감소되면서 오르가슴에 도달하기 어려워지는 부작용을 겪기 쉽다.

따라서 혈압강하제나 이노제, 위장약, 항우울증제 등은 치료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복용하더라도, 환자의 연령과 증상을 감안해 상관관계를 면밀히 관찰한 다음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㉞